

## 6. 면접 고사의 실제

### 대기 - 침착하게 기다리자.

☞ 대기하고 있을 때에는 침착하고 바른 자세로 기다리면서 복장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본다. 이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대기하고 있는 동안 잡담을 한다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있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해서는 안 된다. 대기실에서의 태도로 채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부름 -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 담당 조교가 수험 번호를 부르면 똑똑히 대답하고 조용히 일어나 안내하는 면접실로 간다. 안내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세번 노크 한 다음 대답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

### 들어가기 - 정중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취한다.

☞ 면접실에 들어서면 조용히 문을 닫은 다음, 면접위원을 향하여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그리고 면접위원이 지시하는 자리로 가서 자신의 수험 번호를 말한 후 조용히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편한 자세로 앉는다. 시선은 이리저리 굴리지 말고 면접위원의 가슴 부근에 위치하게 한다. 다리를 꼬거나 꼬지락거리지 말고, 남자의 경우 너무 벌리지 말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다.

### 질의응답 - 솔직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일관되고 정확하게 말한다.

☞ 면접위원들은 보통 3인으로 구성되는데 돌아가면서 질문한다. 이 때에 수험생은 질문하는 면접위원의 눈을 주시하면서 답변한다. 답변을 할 때는 "예" "아니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행어를 함부로 쓴다거나 자신의 얘기에 도취해 경망스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올바른 경어를 쓰고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 자기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일관된 관점을 갖고 문제를 풀어 가는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관 없이 증언부연하는 답변이나 우울한 얼굴 표정, 당황하는 모습은 감점 요인이 된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대답할 때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솔직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한다.
- ㉡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쁘게 대답하지 말고 잠시 생각하여 조리 있게 대답한다.
- ㉢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묻고, 그에 따라 대답한다.
- ㉣ 질문의 요지는 파악했으나, 얼른 대답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잠깐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 잠시 후에 대답한다. 이때에는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답한다. 그러나 정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여야 한다. 엉뚱한 답변을 할 경우 기본 점수마저 감점당할 수 있다.
- ㉤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여 너무 큰 소리로, 빨리, 많이 말하지 말고 요점만을 간추려서 대답하도록 한다.
- ㉥ 혹시 대답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적이지 않는다.

### 나가기 -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나간다.

☞ 질의응답이 끝났을 때에도 들어올 때와 반대되는 동작으로 조용히 면접실을 나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실문과 퇴실문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때에는 면접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무의식중에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듯 급히 빠져 나간다가 나 문을 닫을 때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힘없는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된다. 면접 위원은 수험생이 나가기까지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를 관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